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ORCHEM

ORchestra
2026 | Vol.21
www.orchem.com



ORchestra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언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발행처 (주)오알켄
발행일 2026년 7월 10일(통권 제 21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재단 ORCHEM(본사) 김성범, 임미연
ORCHEM(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베트남법인) Phùng Thị Thanh Nhân
ORC Solution 박승영, 김준용
대표전화 031-488-0600
홈페이지 www.orchem.com

CONTENTS

01 We are ORCHEM



- 03 ... 지나가던 임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 07 ... 신규입사자 Interview
- 09 ... 심천 창고 창고 책임자 Interview
- 11 ... 비나법인 연구개발팀 소개

02 Inside ORCHEM



- 13 ... 애니어그램 팀빌딩 리뷰
- 15 ... 오알켄 '힐링 가든' 소개
- 17 ... CPCA Show 2026 리뷰
- 19 ... 중국법인 2026 상반기 회고
- 21 ... 중국법인 단오절 행사
- 23 ... 비나법인 연구소 워크숍
- 25 ... 오알켄 AI 활용 에티켓 안내

03 ORCHEM-NESS



- 27 ... 1분기 타운홀 미팅
- 30 ... 비나법인 여름 소통 이야기
- 31 ... 비나법인 2026 2분기 미팅
- 33 ... 2026 풋살 대회
- 35 ... 요리동호회 소개
- 37 ... 이색 맛 가이드

04



- 38 ... O!News
- 39 ... O!Quiz

We are ORCHEM

One Team

우리는 한 팀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도전하며 성장해 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한 개인의 특출한 역량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우리의 역량으로 완벽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인사총무팀 김정아 선임-

각자 맡은 역할이 확실하다!
-인사총무팀 이현우 사원-

업무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연구관리~ 연구기획)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어요.
인원수가 적은 부서이다 보니 본인의 업무 영향력이 크고,
부서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것이 장점이에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피드백을 통해 성장할수있다 ~~~!
-재무회계팀 안소희 사원-

단합력이 축구팀 수준이에요. 결속력 하나만큼은 우리 팀이 전사 압도한다고 자부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급변하는 법적 규제나 개정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연구기획팀 박연수 연구원-

-MTV제조팀 홍두화 선임-

지나가던 임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희 팀 자랑 좀 해보자면요...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임미연 연구원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도 친절하게 응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여러 팀의 분위기와 업무 스타일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소통'과 '협력'을 키워드로 자랑해 주셨어요! 만약 우리 팀은 어떤지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멋진 문화를 함께 돌아보며 다같이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보아요~!이번 여름, 다가오는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여름 감기도 조심하세요! ^0^

팀 분위기가 좋고, 여러 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어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분석기술팀 최다정 연구원-

팀장님의 노력으로 팀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친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분위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합니다

-VINA 안현규 연구원-

-분석기술팀 이석희 연구원-

회사 내 여러 부서와 소통하면서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접할 수 있어요 ~

-영업팀 마유진 선임-

선임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중간다리 역할도 잘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기술혁신팀 김진년 연구원-

사람들이 착하고 조화로워요. 팀원들간의 유대감이 짙어요! ㅎㅎ

-분석기술팀 김나영 연구원-

서로 함께하는 분위기가 기술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팀 이훈희 연구원-

... ◆ ... 팀별 자랑거리

• 업무를 하면서 서로 간 소통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업무 진행할 때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서로 평가 방향이나 효율성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여 더 좋은 업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업무적인 내용뿐 아니라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꿀팁이나 여러가지 교훈들 예를들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이야기하다보면 인간으로서 한단계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요

-개발팀 이준석 연구원-

•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팀 분위기가 매우 좋다!!

-개발팀 서민영 연구원-

• 항상 결과가 마음처럼 나오진 않지만 그만큼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어서 재밌어요!

그리고 팀 인원이 많은데도 다들 사이가 아주 좋아요. 개발팀 최고~! ♥

-개발팀 최수진 연구원-

• 음... 우리팀은 조용합니다 ㅋㅋㅋ.. 하는 일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처리할지' 늘 깊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업무가 많아요. 자연스레 일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팀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전사기획팀(전산) 고태윤 책임-

덧붙여, 담당자의 낮가림 이슈로(ㅠㅠ) 더 많은 분께 인터뷰 요청을 드리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욱 발 넓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인터뷰 잘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다가와 주세요. 낮가림은 심하지만, 언제나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임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희 팀 자랑 좀 해보자면요...

• 신규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적응 중입니다..ㅎㅎ

-품질관리팀 이원희 선임-

• 대성책임, 웅빈선임께서 잘 챙겨주십니다 ^^

-전사기획팀(구매) 심규환 사원-

• 구매팀 자랑 심규환 보유

-전사기획팀(구매) 전용빈 선임-

• 전사기획팀은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리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이를 실행으로 이어가는 팀이에요. 기획·홍보·전산·구매의 다양한 전문성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사기획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전사기획팀(홍보) 민선경 책임-

... 신규 입사자 Interview



인사총무팀
전인환 책임

... ◆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총무팀 시설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인환입니다. 동도금 설비 보전 분야에서 약 10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오알켄에서 시설·제조설비·구조물·연구소 및 개발팀 등 전 부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첫 출근 날 기억하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관계사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회사였습니다. 그 바람이 현실이 되어 첫 출근을 하던 날의 설렘과 기대감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회사 내에서 아쉽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갑게 맞아주신 임직원분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순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Q. 오알켄 입사 후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문화입니다.

- * 직원 복지 및 복지포인트 지원
- *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 *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 교육과 안전한 사업장 구축 노력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회사가 구성원의 성장과 안전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취미 부자이신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즐기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평소에는 풋살, 야구, 볼링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고 있으며, 사내 풋살·볼링 동호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나 여가 시간에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구피 약 400여 마리와 사슴벌레, 도마뱀 등을 직접 관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생물을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집중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Q. 업무에 적응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분은 누구인가요?

시설공무 업무는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지만, 여러 부서와 협업이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처음 접하는 업무들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동료분들의 도움과 지원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를 마친 뒤 “고생했다”, “감사하다”라는 한마디를 건네주시는 순간마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움 주신 오알켄 모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팀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끝까지 방법을 찾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전인환에게 맡기면 해결된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동시에 동료들에게는 언제든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 ◆ ...



... 심천법인 NEW 창고 책임자 张权芳 과장 Interview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심천 팀은 오알켄의 성장 전략에 발맞춰,
핵심 사업과 출하 기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화남 시장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재 심천 창고 책임자인 장 과장의 직무 전환 스토리와
창고 리모델링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부터 심천 창고를 책임지게 된 장권방 과장입니다. 벌써 입사한지는 23년이 되었네요.

Q. 이전에는 인사 행정, 통관, 총무, 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지금은 창고 관리와 출하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분야를 넘나드는 조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도전은 역할과 전문 분야의 이중 변화에서 비롯되는데요, 과거에는 백오피스 총괄과 규정 준수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창고 운영과 주문 이행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와 화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창고 관리 전문 지식을 보완하고, 행정 업무에서 배운 꼼꼼한 업무 태도를 현장 운영에 접목해서, 후방 지원에서 운영 관리로의 역할이 변화된 상황에 하루빨리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심천 창고는 2025년 10월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및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를 맡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장님께서 현장을 시찰하신 후 현장 환경과 표준화 관리에 대해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회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일 뿐만 아니라 창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업무량이 방대하고 정상적인 출하를 병행해야 하기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심천 거점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 있기에, 회사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개선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Q. 현재 리모델링 상황은 어떠한가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창고의 새로운 선반을 설치했고, 창고 구역 구분과 약품 배치/표지 표준화를 완료했습니다. 벽면 도색도 완료되는 등,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은 안정적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닥 교체와 사무용 가구 교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청결도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향상할 예정입니다.

Q. 직무 전환 및 리모델링 준비 과정에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천비아오 총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고 관리 규범, 시설 배치 계획부터 리뉴얼 방안 최적화, 선반 설정 및 설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업무 방향을 명확히 잡고 세부 실행 사항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었으며 각 업무를 더 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려운 이 기간에도 고객 주문 납기를 정확하게 준수한 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Q. 현재 심천 법인의 인원 조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조율하고 안정적인 납품을 보장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운영 중단 없이, 질서 있게 개선 하자"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합리적인 분업과 시간대 분산을 통해 주문 출하 및 고객 납품 업무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에 따라 나머지 리뉴얼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창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최적화하며, 프로세스를 세분화하고, 세부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팀을 이끌고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심천 시장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업무 지원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 비나법인 연구개발팀 소개 [도약의 여정과 독자 개발을 향한 갈망]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 법인)

인터뷰 대상. 비나법인 연구개발팀 팀장 Nguyen Van Manh (응웬 반 마잉)

Q. 먼저 비나 법인 연구개발팀의 규모와 미션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팀은 2023년 초기 멤버 단 6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주재원 2명과 현지 연구원 19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비나 연구개발팀은 4개 파트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기동 및 화학동 분야를 중심으로 2가지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신제품 연구 개발 및 기존 약품의 기능 개선을 통해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Q. 지난 시간을 돌아해보았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무엇인가요?

2025년은 매우 바빴지만 결실이 풍성했던 한 해였습니다. 총 45개의 프로젝트 및 업무를 추진하여 그중 30개의 주요 항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인적 성과 측면에서는 분기 우수 사원 2명 (2025년 2분기 및 2026년 1분기)과 2025년 올해의 한국어말하기 대회 최우수 사원 1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신규 입사자가 사내 교육 및 본사의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해 부서의 업무 요구 조건에 맞추어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Q.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부서 내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직 초기 운영 및 안정화 단계에 있다 보니, 간혹 업무 일정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속도가 다소 더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및 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인력 변동이 불가피하여 신규 채용과 교육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R&D 부서는 근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사원들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원들이 회사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Q.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R&D 부서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부여된 프로젝트를 100% 완수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고객사 요구에 맞춘 약품 독자 개발의 첫걸음을 뗄 것입니다. 또한 영업기술 및 품질관리 부서의 평가 업무 요청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 세미나와 본사 심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 비전으로는 2027년까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독자적인 연구 및 자체 개발 환경 구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정성 넘치는 열정적인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R&D 부서원 모두가 앞으로도 지금의 열정을 잃지 않고 모든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우리 회사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고객사, 지역 사회, 임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Together, We Build The Global No.1 Plating Company”
임직원의 행복에서 시작한 이 발걸음이 모두를 위한 눈부신 결과를 세워갈 것입니다.

·
·
·
·
·

공감과 융화, 애니어그램으로 서로의 설명서를 읽다 [개발팀편]

글. 사내 기자단 김성범 연구원

우리 개발팀은 얼마 전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팀빌딩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부에서 모신 강사님이 어찌나 달변가이신지 시작하자마자 홀린 듯 강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강의가 끝나있었을 정도로,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몰입도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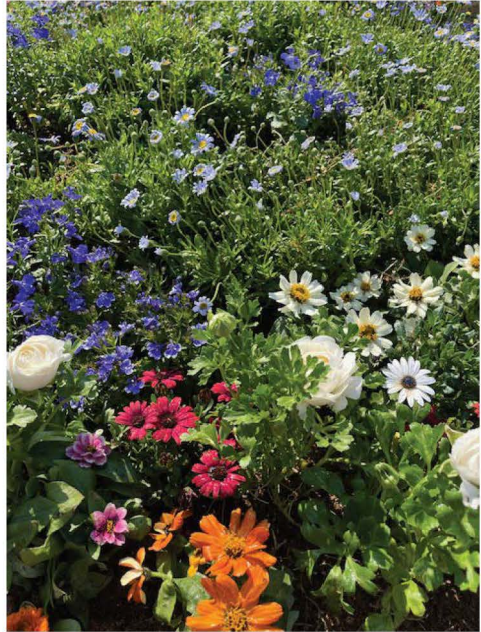


팀 빌딩 활동은 애니어그램의 1번 개혁가부터 9번 중재자까지 성향별 특징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유형별 특징을 하나씩 읊으실 때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어? 저거 완전 ㅇㅇㅇ인데?"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팀원들의 얼굴을 대입해 보며 '아, 그래서 그때 유독 그렇게 꼼꼼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질문했을 때 그렇게 바닥을 오랫동안 보셨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업무 중에 가졌던 소소한 의문들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서로의 다름을 유쾌하게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의 백미는 리더와 팀원 모두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리더들이 팀원들에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당부부터, 팀원들이 리더에게 은밀히 바랐던 '팩트 폭행' 수준의 아쉬운 점까지 강사님이 중간에서 거침없이 풀어주셨습니다. 마음속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강사님의 사이드 같은 해석 덕분에 그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짜릿함(?)도 조금은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고 즐기며 감정을 푸는 것에만 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유형별 장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셨고, 단점은 뼈 때리는 팩트로 객관적으로 짚어주시는 균형 잡힌 강의였습니다. 덕분에 개발팀이 앞으로 업무에서 어떻게 서로 손발을 맞추고 시너지를 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의 소통이 효과적인지 등의 실질적인 방향을 찾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사내 핫플 탐방] 사장님도 부러워할(?) 오알켄 ‘힐링 가든’의 비밀

글. 사내 기자단 임미연 연구원



점심시간, 오후 커피 한 잔 들고 발걸음이 자동으로 향하는 그곳! 새로 단장한 사내 정원이 이번 봄에 한창 핫한 키워드였죠. (들썩들썩떠들썩 참고*) 따스한 햇볕 아래 흔들의자에 앉아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 보면, 오전 내내 모니터를 보며 쌓인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특히 파릇파릇한 우리 신입사원들이 이곳에서 동기들과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이제 정원의 시그니처 풍경이 되었답니다.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뒤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인사팀의 주말 반납 잔혹사 (feat. 휴먼 다큐멘터리)

기존에 외롭게 자리를 지키던 흔들의자 주변으로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 회사의 만능 해결사, 인사총무팀의 피·땀·눈물 덕분이에요. 지난 어느 주말, 남들은 교외로 드라이브를 떠날 때 인사팀 직원들은 회사 앞마당으로 출근을 감행했어요. 흙을 파고, 나무를 심고, 예쁜 납작 돌(디딤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깔아 멋진 산책로를 만들었죠. 잡초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잔디에 영양 가득 비료를 처방할 때는 거의 식물병원 원장님 수준의 포스를 풍겼다는 후문이에요. 월요일 출근길에 마주친 인사팀원들의 허리가 조금 굽어 있고 손이 흠뻑이였다면,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정성을 불태운 훈장이에요.



나무도 자라고, 우리도 자라고! (feat. 꽃들의 밀당)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정원의 꽃들이 초기의 생기를 조금 잃고 밀당을 하는 중이긴 해요. 하지만 식물도 우리 직장인들처럼 휴식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비록 꽃들은 다음 계절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꼼꼼히 갈아둔 디딤돌과 푸른 잔디, 그리고 흔들의자는 여전히 힐링하기에 충분한 장소예요. 특히 이번에 새로 심은 아기자기한 작은 나무들을 눈여겨봐 주세요. 지금은 작고 귀엽지만, 매일매일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우리 회사 마당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예정이에요. 마치 우리 회사에서 매일 조금씩 배우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우리 임직원들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나요? ㅎㅎ 정원을 거닐 때마다 이 작은 나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싹싹 자라는 만큼, 우리의 커리어와 회사도 함께 멋지게 성장해 나갈 테니까요!

정원을 제대로 즐기는 꿀팁

신입사원 코스: 점심 식사 후 동기들과 흔들의자 선점하기. (눈치싸움 필수!)

성장 공유 코스: 작은 나무 옆에서 사진 한 장 남기고, 내년엔 얼마나 자랐나 비교해 보기.

비타민D 충전 코스: 스마트폰은 잠시 주머니에 넣고, 햇빛을 쬌며 5분간 멍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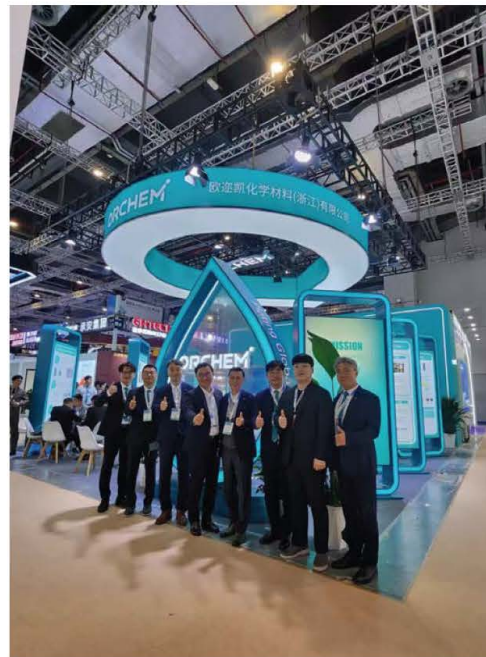
바쁜 업무 중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점심에는 인사팀의 장인정신과 우리의 미래가 담긴 힐링 가든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 인사팀 협찬이나 압박 없는 100% 리얼 후기입니다^0^)

... CPCA SHOW 2026

글.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3월, 오알켄은 상하이 국제전시장(SICEC)에서 열린 인쇄회로기판 전문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업계 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시장 채널 확장을 통해 회사 브랜드 이미지와 업계 내 영향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따뜻한 동반자 [중국법인 2026 상반기 회고]

글/사진.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2026년 상반기,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따뜻한 기업 문화를 조성해 전 임직원이 한 가족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오알켄 중국법인은 모든 여성 직원에게 위해 정성껏 준비한 기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각 직책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존경을 표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부서 간 소통을 증진하고 팀의 결속력을 다지며, 생산 인력을 안정화하기 위해 4월 제조 센터(창고, 품질, 생산)를 대상으로 팀 빌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상하이의 인기 명소인 쉬후이 빈장 서안 몽센터로 향했습니다. 자유롭게 관광하며 힐링하고, 동료 간의 우정을 다졌으며,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행사 내내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팀의 결속력과 응집력, 직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구성원들의 가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전 직원의 자녀들을 위한 명절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진행된 일련의 활동들은 오알켄의 인간적 배려와 기업 문화의 깊이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임직원을 배려하고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며, 문화·체육 및 복지 활동을 다채롭게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이곳에서 안심하고 일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한 단오절

글/사진.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단오가 다가오며 찹쌀떡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절강법인은 모든 임직원이 바쁜 업무 중에도 명절의 정취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공예 활동과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성실한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절강법인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회사 로고가 새겨진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 상자에는 단오 찹쌀떡뿐만 아니라, 여름철 야외 활동에 유용한 실용적인 선물 세트도 포함되었습니다. 소형 선풍기, 양산, 자외선 차단 아이스 슬리브, 모기 퇴치 크림, 식탁 매트, 손수건 등 실용성을 겸비한 아이템들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활동으로는, 쑥 문걸이 만들기 체험을 기획했는데요, 모두가 직접 쑥 장식을 만들며 단오의 민속 분위기를 온전히 체험했고, 현장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팀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찹쌀떡의 향기 한 줄기, 정성 한 뭉치. 이번 단오 행사는 회사의 따뜻한 인간미를 충분히 보여주며 팀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사 모든 동료분들께 단오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 비나법인 제2회 연구센터 워크숍 : 탐다오에서 다진 창의와 결속

사진/글.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 법인)



지난 4월, 연구소센터는 탐다오에서 '제2회 정기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본사 연구센터의 임원이 참석하여 베트남 연구센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활기찬 교류에 이어 사전 추천된 주제별 발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팀은 부서의 역할과 일상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들을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탐다오 산을 오르는 활기찬 등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준 팀을 뽑는 '팀별 사진 콘테스트'는 큰 웃음을 선사하며 임직원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연구센터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비나 연구센터 신입사원의 소감: "이번 탐다오 워크숍은 저와 같은 신입사원에게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모두와 함께 업무에 대해 토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등산이라는 도전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색함을 깨고 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R&D 대가족의 따뜻한 정과 강력한 결속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AI 활용 습관!

오알켄 AI 활용 에티켓 안내

AI는 업무와 일상을 도와주는 똑똑한 도구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 아래 **3가지**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01

개인·회사 정보를 보호해요

- ✓ 회사 보안·기밀자료를 AI에 활용하지 마세요
- ✓ 고객정보·개인정보를 AI에 활용하지 마세요
- ✓ AI 계정의 ID·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마세요



02

저작권·지적재산권을 지켜주세요

- ✓ AI 생성물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해요
-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요



03

AI 생성물은 한 번 더 확인해요

- ✓ AI 생성 정보는 사실과 다른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성·윤리성·적합성을 확인해요
- ✓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요!



명확한 꿈을 공유한 우리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이유를 이해합니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오알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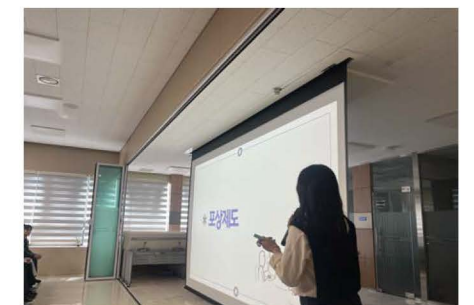
·
·
·
·
·

1분기 타운홀 미팅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지난 4월 1분기 타운홀 미팅이 오알켄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분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조직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타운홀 미팅! 소통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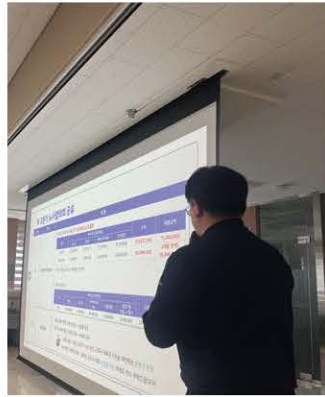
첫번째 순서로 전사기획팀 김흥덕 수석께서 1분기 경영 실적과 향후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영 리스크 속에서도 우리 회사가 거둔 매출과 손익 현황을 투명하게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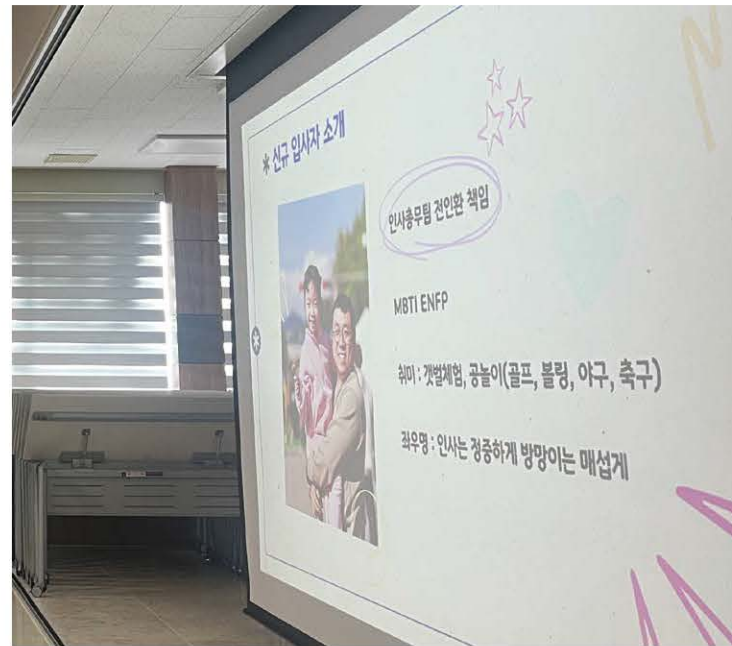
이어서 인사총무팀 김채연 선임의 포상제도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 단순히 결과만 남는 포상이 아닌 과정과 맥락을 공유함으로써 전사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포상 제도로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포상이 아닌, 각 구성원이 새로운 도전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있나요?’ 인사총무팀 김정아 선임의 새로운 팀빌딩 프로그램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단순 유형 구분이 아닌, 서로의 성향과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해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팀 내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총무팀 강형욱 책임의 1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공유있었습니다. 의결 및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전 임직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6년 예산 현황부터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복지와 직결된 내규 개정 사항, 또 동호회 주관 행사 등 공개 되어 임직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타운홀미팅의 핵심! "신규 입사자 소개" 이번 분기에는 경력직 직원분들이 입사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새로운 동료의 첫걸음을 열렬히 환호했는데요, 조직 안에서 무한히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회사의 변화를 함께 인지하고 발맞추어 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 비나법인 여름 소통 이야기

사진/글.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 법인)

소통 강화 활동 : 여행을 떠나자!



지난 5월 중순, 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닌빈(Ninh Binh)에서 소통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온한 분위기로 유명한 쟁안(Trang An)과 빅동사(Bich Dong) 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쟁안은 '육지 하롱베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쟁안에서는 임직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수려한 산수 경관을 감상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빅동사에서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소통강화 활동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바쁜 업무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결속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휴식 한 잔!



베트남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장시간 근무 시 열사병과 피로 누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여름철 음료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원한 검은콩 단팥차와 상큼한 레몬차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의 관심과 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동도금, 생산, 공무, T/S, 미화, EHS 등 고온 환경이나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서에는 전해질 발포정을 추가로 제공하여 수분과 전해질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이 임직원 여러분께 작은 활력이 되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케비나 가족 모두가 항상 활기찬 에너지와 안전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비나법인 2026 2분기 미팅

사진/글.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 법인)

지난 4월, 비나법인은 26년 1분기 실적 및 26년 2분기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2분기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제도

조직 역량 강화와 함께, 회사는 사업 목표 달성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공식 시행하였으며,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 회식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절감활동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 부족 및 가격 변동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 부서에 전기, 수도 및 소모품 사용 절감 등 운영비 절감 활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비나법인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원 3명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상하신 사원 여러분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금처럼 빛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시기를 응원합니다.

우수사원 시상

- + 응웬 공 흥 (Nguyen Cong Hung): 영업기술센터 우수 사원
- + 레 밍 중 (Le Minh Trung): 연구센터의 우수 사원
- + 르엉 티 투이 응아 (Luong Thi Thuy Nga): 3정5S 활동의 우사 직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도전 과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정신을 더욱 굳건히 실천해야 합니다. 전 임직원의 단합된 힘과 협력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6 풋살 대회

5월,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2026 본부 대항 풋살 대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각 본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명승부가 펼쳐졌던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첫 경기부터 치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혼자서 무려 4골을 넣은 COO본부의 심규환 사원이 있었는데, 뒤이어 전용빈 선임, 하재필 책임, 전인환 책임이 각각 1골씩 보태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CPO 역시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선보이며 홍두화 선임의 값진 1골을 기록했습니다만, COO팀의 든든한 수문장 강형욱 책임의 철벽 수비를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땀방울을 뽀뽀 흘리며 끝까지 회선을 다해 뛰어준 두 팀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두번째 경기는 COO와 CTO의 경기였는데요, 양측 모두 승부욕을 불태우며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CTO 김관현 연구원 2골, 김성범 연구원 1골, 박경민 연구원 1골

*COO 심규환 사원 1골, 이현우 사원 1골, 공진호 선임1골

추격전 끝에, 경기는 4:4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격렬한 경기였던 만큼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되었길요!



드디어 승패를 나눌 마지막 경기! 상금의 주인공은 누구였을지요, CPO 대 CTO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무려.. 5골을 몰아친 CPO에게 돌아갔습니다. CTO 김성범 연구원의 활약으로 1골을 만회하며 끝까지 분전했으나 CPO의 매서운 공격세를 꺼지는 못했습니다..

CPO에서는 홍두화 선임이 2골, 주용기 기사가 2골, 박현석 사원이 1골을 기록했습니다!

2026 풋살 대회 왕좌는 누구?!?

- 1승 1무 COO+환경안전팀
- 1승 1패 CPO
- 1무 1패 CTO

본부를 대표해 뛰어준 선수들의 투혼과 관중석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해 준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더욱 빛난 대회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대회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회장 연구소 박민지 연구원

오알캠 요리 동호회

요리 못해도 괜찮아요! "맛있는 손맛"에 빠진 우리들

먹는 즐거움만큼 만드는 기쁨도 큰 법! 저희 요리 동호회는 요리 학원 원데이 클래스와 홈 DIY 활동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곰손'이라 걱정하시라고요? 걱정 마세요. 전문가의 지도 아래 누구나 셰프가 될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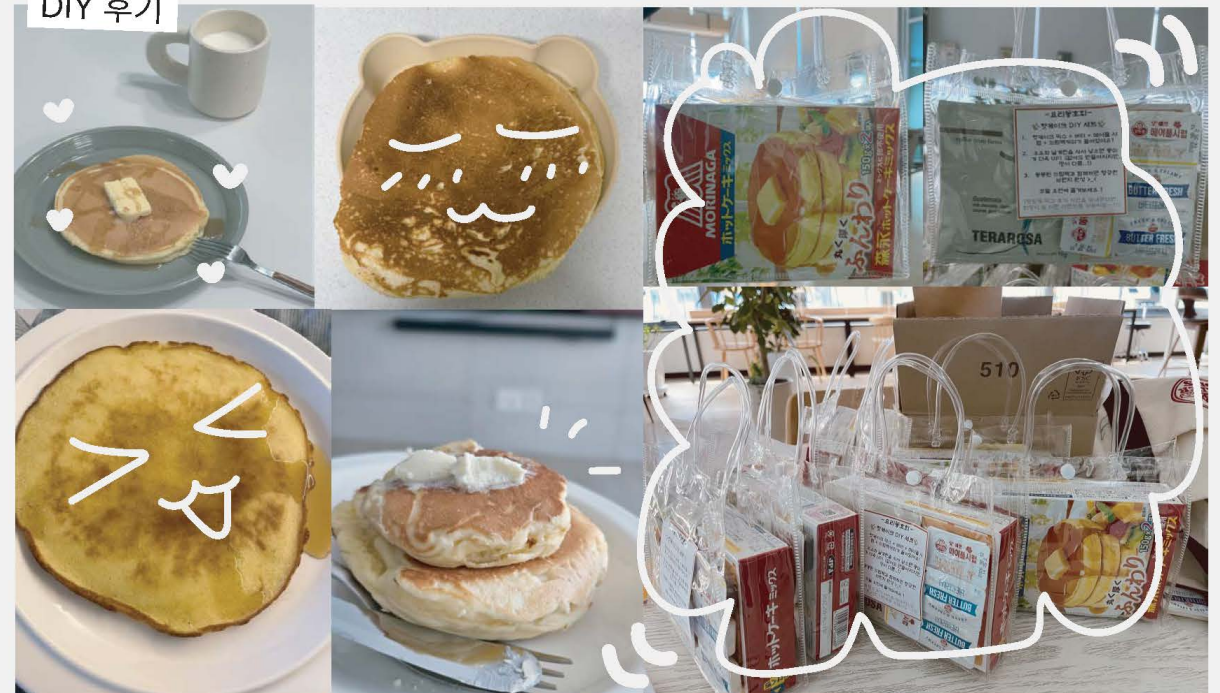
[Bonus] 요리만 하나요? 맛있는 화식까지!

함께 요리하며 쌓인 정은 맛있는 음식으로 더 돈독해집니다. 지난 연말에는 제철 대방어회로 화끈한 회식을 즐겼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맛있는 메뉴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DIY] 집에서 즐기는 '방구석 파티셰'

학원만 가기엔 아쉽죠? 가끔은 집에서 즐기는 'DIY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번 3월에는 핫케이크 만들기 키트를 나눴는데요. 분명 같은 재료인데 완성된 모양은 다양각색! 회원분들의 개성 넘치는 인증샷 속에서 예상치 못한 손재주에 서로 깜짝 놀라곤 합니다.

DIY 후기



그동안의 메뉴!!

라자냐 & 감바스, 뉴욕 치즈 케이크,
후토마끼 & 함박 스테이크 등등!!

[Lesson] 수원역 요리 맛집?
아니, 요리 학원!

3개월에 한 번, 토요일 오전 10시면 수원역 대형 요리학원으로 모입니다. 전문 강사님께 비법을 전수받고 직접 요리하며 시식까지 즐기는 힐링 타임! 정성껏 만든 요리는 예쁘게 포장해 집에 가져가 가족들에게 솜씨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의심 반, 기대 반!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이색 맛 가이드'

글. 사내 기자단 김성범 연구원

요리하기는 귀찮지만 무언가 특별한 맛이 그리운 사우 여러분을 위해, 주방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이색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흑백요리사 정지선 셰프의 초스피드 라면부터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구르트 수육까지! 여기에 '과자와 김치', '된장찌개와 토마토'처럼 상상도 못 했던, 혹은 상상하기 싫었지만 맛이 꽤나 괜찮았던 의외의 꿀조합들을 모아봤습니다. "에이, 설마?" 하는 의심은 잠시 접어두시고, 요리 초보도 5분이면 똑딱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하지만, 고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 완료된 맛!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혹은 나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 한 끼, 디저트 한 입 드셔보시는건 어떠세요? 유쾌하고 반전이 가득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이왜진!? 초간단 레시피]

정지선 셰프의 '40초 안성탕면'

Key : 덜 익은 듯한 식감에서 오는 걸바속쫄!

*준비물 : 안성탕면(라면)

* 요리 순서

1. 물 550ml가 끓으면 분말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2. 면을 넣고 딱 20초간 끓입니다.
3. 면을 뒤집어 다시 20초만 더 끓인 뒤 즉시 불을 끕니다.

* 면발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로 먹는 것이 포인트

성시경의 '10분 원팬 잡채'

Key : 볶지 않고 끓여서 끝내는 초스피드 잡채

*준비물 : 돼지고기 200g, 물 500ml, 진간장,

* 요리 순서

팬에 모든 재료와 양념을 때려 넣고,
물이 졸아들 때까지 끓이면 완성!

양념 : 굴소스 1.5T, 간장 1.5T, 치킨스톡 1T,
설탕 1T, 베트남 고추 3 개

[의외의 꿀조합]

에이스 + 구운 김치 = 삼겹살 맛?

- 구운 김치를 에이스 과자 위에 올려 먹으면 삼겹살 맛 이 납니다;;
- 과자와 김치 크기를 1:1 비율 로 맞추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 올리브유 + 후추

- 고급 디저트 카페에서 유행하며 실제 메뉴화(젤라또 아이스크림점에서)까지 된 조합입니다.
- 올리브유의 풍미와 후추의 알싸함이 바닐라의 단맛을 극대화!!!

김치 + 치즈 = 감칠맛 폭발

- 김치의 산미와 치즈의 지방이 만나면 감칠맛 성분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강렬한 풍미가..!

된장찌개 + 토마토

- 토마토의 '글루탐산' 성분이 된장의 구수한 맛을 깊게 만들어주며, 서양의 스튜 같은 이색적인 깊은 맛을 냅니다.

맥주 + 후추

- 맥주 위에 후추를 살짝 뿌리면 맥주 특유의 풍미 뽐뽐
- * 단, 너무 많이 넣으면 후추 향이 맥주 맛을 가릴 수 있어서 조금 줄여서 다시 만들고 먹고 조금 늘여서 다시 만들고 먹으면 만취할수도,,

편스토랑 '요구르트 수육'

Key : 설탕 대신 요구르트로 잡내 제거와 연육 작용을 동시에!

*준비물 : 삼겹살 1.2kg, 물 400mL, 요구르트 15개(작은거), 간장(요구르트병 기준 4병)

* 선택 사항 : 월계수잎, 대파뿌리 등등

* 요리 순서

물 대신 요구르트넣고, 센불에 40~50분 끓이면 완성!

- 4월 14일 1분기 타운홀 미팅
- 4월 14일 중소기업 확인서 취득
- 5월 ESG 우수 중소기업 선정
- 5월 13일 오알캠 후원 '베하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 연주회
- 5월 14일 오알캠 풋살 대회 개최

오알캠 사보 영역

ORchestra 21호를 제대로 읽었는지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인사총무팀 김정아 선임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정답자 중 4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주관식입니다.
 *모든 정답은 ORchestra 21호 안에 있습니다. 눈을 잘 떠 보세요.

1.인사총무팀 전인환 책임님은 구피를 약 몇 마리 키우고 계신가요?

2.오알캠 AI 활용 수칙 세가지는 무엇인가요?

3.풋살 대회 1등 팀은 어느 본부인가요?

4.요리 동호회가 3월 DIY 이벤트에서 만든 메뉴는?

5.삼겹살 맛이 나는 의외의 꿀조합은?

6.이번 팀빌딩은 무엇을 활용한(어떤 진단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었나요?
 (힌트 : 5글자)

7.비나법인 연구소가 워크숍에서 방문한 산은?